

소식

기관단체

■ 양계업등록 관리철저

농림수산부는 양계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계업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는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양계업의 등록을 필하고 유관기관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망하였다.

- 신규로 등록하는 양계업은 기준등록규모(산란계 30,000수, 육계 10,000수) 이상 등록을 지양하여 부업양계농가의 소득원 보호에 노력할 것.
- 등록업체에 대한 유희사육동향을 철저히 조사하여 수급동향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양계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미등록 양계업자가 없도록 할 것.

■ 닭고기가공 시찰단 미국시찰

USFGC(한국지부회장 박영인)는 육계가공업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가금처리협회의와 공동으로 닭고기가공 시찰단을 구성하였다.

도계, 닭고기가공, 유통 및 소비는 물론 즉석식품을 포함한 닭고기가공식품의 개발상황과 양계산업의 계열화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돌아볼 이번 시찰단은 류성브로일러의 류종래사장(본회 이사)을 포함한 8명의 업계 및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2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의 주요 여정은 로스앤젤스를 비롯 여러곳의 도계장, 닭고기 가공장, 닭고기제품개발 연구기관, 슈퍼마켓, 즉석식품점, 계열화체계 및 유통체계, 업계단체, 대학 및 정부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미국의 닭고기 가공산업현황 등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 볼 예정이다.

*시찰단은 다음과 같다.

류종래(류성브로일러), 조동호(신미식품), 윤영

이(삼성브로일러), 조순희(수원도계장), 김영호(한일농원), 이계명(천호), 박형근(농수산부)

*안내 : 박영인(USFGC)

■ 농수산부가 「농림수산부」로 — 중소가축과 경영계 신설운영 —

지난 1월 1일자로 농수산부가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내무부에 속해있던 산림청이 이관되면서 부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지금까지와의 업무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소가축과(과장: 이인형)에도 경영계가 신설되어 운영케 됐다.

전담 업무는 중소가축분야의 경영분석, 경영지도, 닭과 돼지를 제외한 중소가축의 사양지도, 유통량 조절 등을 관장하게 된다.

중소가축분야의 새로운 경영합리화가 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니 양축가들의 기대는 크리라고 본다.

■ 각 도·군 축산행정기능 확대 — 산림과를 산림국으로 —

정부는 올해부터 산림청이 농림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각 도 및 군의 행정기능을 확대·보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에 기존의 산림과를 국으로 확대하고, 도마다 1개군씩 선별(충북은 2곳)하여 축정계를 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산림자원을 기존의 보존차원에서 개발자원으로 개발하는데에 따르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일선 행정조직을 보완한 것이다.

■ 축협 배합사료가격 인하
— 평균 3% 정도 내려 —

축협중앙회의 배합사료가격이 평균 3% 정도 인하됐다.

축협은 지난 1월20일 직영 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 35개 품목의 가격을 최고 10.4%에서 최저 1%까지 인하·조정했다.

이에 따라 산란초기용 양계사료 25kg들이 한부대에 4,433원에서 3,971원으로 10.4% 내렸다.

■ 초지법 개정

86년 12월31일 법률 제3886호로 초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 5 조 2 — 허가청(농림수산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의 적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 — (사유미간지의 임차조성)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초지조성을 위한 단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 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 관계에 대하여는 임대차 당사자간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지조성지구의 대리조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초지조성을 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고, (생략)

제 20 조 — 허가청으로부터 초지조성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산림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청장 등의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등의 또는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 23 조 — 초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로만 가능.

■ 법률공고

86년 12월31일부로 개정 또는 제정·공포된 농수산관계 법률은 농어촌지역 개발기금법(법률3884호)

과 초지법 외에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법률 제3885호) 농어촌개발공사법 개정법률(법률 제3887호) 농지임대차 관리법(법률 제3888호), 환경보전법 중 개정법률(법률제 3903호) 폐기물관리법(법률 제3904호) 등이다.

■ 서울·경기양돈 계통출하 활발

서울·경기양돈조합(조합장 심재양)은 지난해 11월말까지 5만2천8백여두의 돼지를 계통출하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은 양돈경기 호황과 함께 배합사료 공급도 원활했고, 계통출하도 순조로와 조합원 소득이 향상됨은 물론 그간에 쌓였던 부채도 다소 해소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우유조합 상호금융 개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강성원)은 지난 1월 16일 동대문구 상봉동 본소에서 상호금융업무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서 중앙회 김춘배부회장을 비롯, 조합원 및 조합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업종조합의 상호금융개점은 비수기에 자금압박을 면할 수 있는 등 조합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명칭변경

중전 농어촌개발공사가 87. 1. 1일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 안교덕)로 공사명칭이 변경되었다.

농어민의 소득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공사법이 개정되어 기관명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과 아울러 사무실도 이전예정이다.

종	전	변 경 후	변 경 일
농어촌개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87. 1. 1

※영문표기 Agricultural and Fishery Marketing Corporation.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

*전화번호 : 변경없음.

■ 제43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개최

지난 1월30일 가축위생연구소 회의실에서 제43차 가축질병예찰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중앙협의회 위원 및 간사, 각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축산단체 등이 참석하여 '87가축전염병 혈청사업, '87가축전염병 혈청사업 기술교육, 돼지 전염성위장염 예방약 수급조절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다.

특히 '87가축전염병 혈청사업 기술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시 기 : 1987. 2. 16 - 3. 7 (21일간)
- *대 상 자 : 각시·도 가축위생소 본소 및 지소
- *교육장소 : 가축위생연구소
- *대상질병 : 뉴캐슬병 등 11종

■ 모든 초과사육시 두당 219,750원

농림수산부는 고시 87-3호로(1월24일) 축산법 제14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7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한 87년도 모든 초과사육 부과금을 모든 두당 219,750원으로 고시하였다.

정부가 기르라는 두수보다 많이길러 부과금을 내게된 것은 단군 이래 처음 실시되는 제도이다.

■ 타피오카 할당수량 30만톤

농림수산부는 타피오카 펠렛 30만톤과 루핀시드 16만톤에 대하여 현 기본 관세율 20%를 7%로 감해주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요령을 1월26일부로 공고하였다.

■ 대동물에도 해외연수

정부는 87년도 공무원 일반과정 훈련분야중 젖소 후대검정(일본 국립목장 가축개발 사업단) 수정란 이식(불란서 농업기술연구소 소 수정란이식 연구실)에도 국비로 단기 연수시킬 계획으로 알려졌다.

■ 축산시보 축산인 신년교례회

축산시보(사장 윤봉중)는 지난 1월6일 서울 전

경련회관 난초홀에서 축산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축산시보사 축산인 신년교례회 광경

이날 축산인 신년교례회에는 농림수산부관계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및 축산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윤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국내 축산관계인사의 각별한 성원으로 축산시보가 발전의 기틀을 이룩했다고 말하고, 축산시보는 축산인국을 지향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함은 물론 우리나라 축산의 진정한 귀와 눈이 되고, 보다 밝은 거울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 축협중앙회 창립 6주년 기념

축협중앙회(회장 명의식)는 지난 1월5일 중앙회본부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축협중앙회 창립 제6주년 기념식 겸 87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명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금년을 계기로 축협중앙회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각오를 새롭게 하자고 말하고, 모든 축산물의 수급안정을 통한 가격안정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농림수산인 신년교례회 성료

황인성 농림수산부장관은 지난 1월5일 농협회관에서 농림수산부 3급이상 직원과 산하기관 및 단체간부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날 교례회에서 황장관은 올해도 풍년농사달성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전 행정기능을 동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 농수축산신보 농수축산인 신년교례회

〈주〉농수축산신보(사장 엄익채)가 주최한 농수축산인 신년교례회가 지난 1월8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홀에서 개최됐다.



△농수축산신보 신년교례회

이날 농수축산인 신년교례회에는 유종탁 농림수산부차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장, 학계, 업계·언론계 대표 및 축산관계인 500여명이 참석해 올한해를 여는 새해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엄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도 풍년달성과 농림수산업지원 세력기반을 더욱 확충시켜 농어가 소득증대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했다.

■ 한국수퍼체인협회 일본시찰단 모집

한국수퍼체인협회(회장 강상욱)는 오는 2월11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유통업체를 둘러 볼 시찰단을 모집한다.

동협회에 따르면 시찰대상자는 관서수퍼 및 다이마루 피코크로 점포개발 및 상품관리, 상품관리시스템, 점포·고객영업 관리시스템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국내업체와의 비교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희망자는 체인본부 간부 및 점포개발운영담당, 일반수퍼마켓 점주, 백화점 GMS 관계자 등 유통관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퍼체인협회는 지난해 동안 3차례에 걸쳐 45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그 효과가 인정돼 올해도 4차례의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국식품신보 창간기념 리셉션 성료

주간한국식품신보(회장 김동섭)는 지난 1월20일 창간1주년 기념리셉션을 앰버서더호텔 2층 서궁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이해원 보사부장관을 비롯해 관련기관대표 및 식품분야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언론사에서 최초로 창간된 주간식품신문으로서 본래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과학적인 식품산업의 발전과 우리국민의 주식에서부터 2차식품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닭백신유통 협의회 개최

농림수산부 가축위생과는 효율적인 닭백신유통을 위해 지난 1월15일(목) 오후 종합청사 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5개 백신제조업체, 양계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유통 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산 마력백신 공급을 위주로 토의하였는데, 당분간 국산과 외국산을 함께 사용하면서 점차 국산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외에 △닭백신 유통 △오일 백신 생산 개발방향 △효율적인 닭백신공급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기타사항으로 닭방역 대책에 대하여도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영농·생활수기 및 농촌사진작품 공모

사단법인 농민신문사는 창사 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3월10일까지 영농·생활수기 및 농촌 사진작품을 널리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네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의 영농수기는 농민 또는 농민 후계자가 밭과 지혜로 역경을 극복한 사례, 생활수기는 농촌부녀자들의 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담은 내용, 컬러·흑백사진은 농민의 진지한 삶의 모습이나 발전하는 농촌의 모습을 담은 작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품길이는 영농·생활수기의 경우 200자 원고지 50매내외, 사진작품은 컬러·흑백 모두 11×14인치이다.

입상작은 '87. 4. 25일자 농민신문에 작품계제와 동시 발표하게 되는데 입상편수 및 작품료는 다음과 같다.

◇ 영농·생활수기

- 당선작 : 부문별 각 1점(각 50만원)
- 가 작 : 부문별 각 1점(각 25만원)

◇ 농촌사진작품(컬러·흑백부문)

- 금 상 : 부문별 각 1점(각 30만원)
- 은 상 : 부문별 각 1점(각 20만원)
- 동 상 : 부문별 각 1점(각 15만원)
- 입 선 : 부문별 각 25점 이내(기념품 증정)

■ 환경청 공고

환경청은 공고 제87-2호로 1월24일 87년도 환경오염방지기금 운용요강을 공고하였다.

※내용생략(문의사항은 환경청 418-3766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액 신고

국세청은 지난 9일 농수축산업자, 의사, 변호사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할 86년 수입금액 신고기준율을 확정·발표하였다.

축산업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율에 맞게 1월25일까지 신고하면 세무조사 등의 불편한 조치를 받지 않고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소득표준

율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기준율

(전년도기준 : 100, 단위=%)

업종	종목	서울·부산	광주·대전	인구 10만이상
		대구·인천	울산	시(기본율)
축산업	양계	101	101	101
	양돈	110	110	110
	육우	75	75	75
	낙농	110	110	110
	기타	110	110	110
도매업	농산물	106	104	102
	수산물	106	104	102
	축산물	120	118	116
소매업	농산물	104	102	100
	수산물	110	108	106
	축산물	120	118	116

■ 제 1 회 가축개량심포지움 성료

한국기축육종연구회(회장 오봉국)가 주최한 가축개량심포지움이 지난 1월20일 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관련인사 및 양축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축산시험장 정숙근 양돈과장이 「하이브리드 종돈의 능력평가와 경제성분석」 건국대 축대 이광전교수가 「유우의 능력검정과 개량계획」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편, 주제발표가 끝난후 참석자와 발표자간의 질의 응답이 있었으며,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발표자는 충북대 농대 김내수교수, 건국대 축대 박홍양교수, 종축개량협회 이문연박사였다.

■ 제 3 회 국제농수축산 전시회

— 4월28일에서 5월 4일까지 —

농수축산신보사(사장 엄익채)는 1987. 4. 28~5. 4까지 한국기계공업진흥회 전시관에서 제3회 한국국제농수축산 전시회를 개최한다.

제 2회 한국농수축산 박람회(1986. 5. 7~5. 13)의 성공적인 행사에 힘입어 연례행사로 정착한 이번 제 3회 전시회는 농수축산가공품 및 관련기자재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농수축산가공품 및 관련기자재의 신기술 개발촉진과 수요창출 및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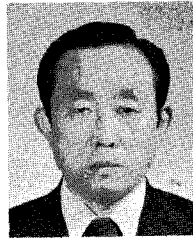
출품을 원할 경우 농수축산신보사(전화 585-0091~5)에 연락, 출품신청서와 출품요령을 안내받기 바란다.

■ 한국육가공협회 정식출범

한국육가공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정식인가(보사부 제122호(86. 12. 27))를 받아 강진우씨(롯데대표)가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개최된 창립총회(86. 8월)



◁김동근 육가공협회 부회장

동협회는 육가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육가공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 식생활개선과 체위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상호간의 구심적역할에 활력을 불어넣어 회원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88올림픽 국내개최와 관련, 국제경쟁력배양 및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국내산 육가공품의 국제수준화 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되어 있어 협회기능활성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한국냉장 자사진열제품 조사나서

한국냉장(대표 신정수)은 자사 육가공제품의 유통기간을 엄수하기 위해 생산부직원 5명을 동원, 서울과 부산지역 소매점에 진열된 제품의 날자를 검사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전량 수거하고 있다.

한냉은 평압살균의 축육제품에 대해서는 10℃이하에서 30일 그리고 통조림제품은 18개월로 유통기간을 정하고, 각 제품에 제조일자와 함께 유통기간을 표시하고 있다.

- 매일먹는 계란속에 완전영양 평생건강
- 우리가족 건강식은 영양만점 닭고기로
- 달걀은 완전식품 닭고기는 건강식품